



가을 탈모

더모 헤어플란트 미지예피부과 정진욱 원장

머리 빠지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 세월은 우리에게 저 혜를 주시고 머리카락을 가져가는구나!” 나이 들어가면서 줄어드는 머리카락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푸념이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털은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털은 별다른 기능이 없으며 점점 뇌화대 현재는 머리카락과 수염 등만 한정되어 남아있는 정도다.

그럼 사람에게서 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코털의 경우는 콧속으로 들어가는 공기에서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주고,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털은 생명유지를 위한 기능보다는 자기의 외모를 결정짓는 미적요소로서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자기의 모발을 가꾸면서 자기의 아름다움이나 우아함을 표현하고 있다. 남성에게 있어서도 풍성하고 잘 정돈된 모발은 젊음을 표현하며,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녀 불문 고민있다 싶으면 소리없이 ‘슝슝’

하루 70개 이상 빠지면 이상징후… 가을철 더 심해

풍성한 모발 간직 위해 건강한 식생활 자기관리 중요

◇증가하는 탈모

최근 들어서 경제상황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증가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으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게다가 인스턴트식품이나 기름기 많은 청크푸드의 섭취가 늘면서 비만과 고혈압, 당뇨, 탈모 등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어느새 탈모는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이들은 물론 여성들의 고민이 되고 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총 7만개에서 10만개에 이른다. 머리카락은 정상적으로 매일 70개 정도는 빠지고, 새로 올라온다. 빠지는 머리카락도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면 모발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증식력이 떨어져 평상시보다 빠지는 양이 많아진다. 이를 가을철 탈모라고도 하는데,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라고 보면 된다. 가을철에 좀 더 많이 빠진 모발은 봄철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모발이 올라와 정상적으로 보충이 된다.

◇병적인 탈모

정상적으로 매일 만들어지는 모발보다 더 많은 모발이 빠지면 모발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병적인 탈모’라 한다. 병적인 탈모증은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탈

모증이 있다. 가장 흔한 탈모증은 대머리 탈모증으로 알려진 남성형 탈모증이다. 집안에 비슷한 탈모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유전적인 탈모증이라고도 한다. 남성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분비되는 사춘기 이후에 주로 앞이마나 정수리에 나타난다. 처음에는 모발이 평상시보다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더 두드러진 변화는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가늘어지며 심한 경우는 솔털로 변화한다. 심한 경우는 두피가 훤히 노출되고 외모에 변화가 생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남성형 탈모증은 과거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가발이나 모자로 숨기거나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탈모 치료제의 발전과 모발이식수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 탈모증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다. 탈모 초기에는 약물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진행되거나 심한 탈모증은 모발이식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동전 모양으로 갑자기 모발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원형 탈모증일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매우 흔한 탈모증이다. 탈모증의 모양 때문에 원형 탈모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산후 탈모증과 같은 휴지기 탈모증은 힘든 분만과정으로 인해 두피로



더모 헤어플란트 미지예피부과 정진욱 원장이 머리 가운데 부분이 빠지는 전형적인 여성 탈모증으로 고민하는 20대 여성에게 모낭주사치료를 시술중이다.

리암시놀론이라는 주사를 맞으면 된다. 5~8번의 주사 치료로 쉽게 호전되지만, 드문 경우에는 다시 재발하거나 두피 전체로 커지는 경우도 있어서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암치료를 하는 배우가 갑자기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슬퍼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세포분열이 활성화되는 생장기 모발이 항암제 치료 시작 7~10일 후부터 빠지기 시작하여 1~2개월 후에 아주 심해진다. 생장기 탈모증이라고 하며 암 치료가 끝난 후 4~6주가 지나면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운다.

암 치료로 인해 탈모증이 시작한 환자는 가발이나 예쁜 손수건, 모자로 치료기간을 극복할 수 있다. 그 외에 교통사고, 머리 수술, 화상 등 외상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털이 자라지 않는 경우와 내과적인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흉터로 텔루리언 털집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털집이 완전히 파괴되면 임상적으로 털구멍이 관찰되지 않는다. 일단 털집이 파괴되면 그 자리에서 털이 자랄 수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모발이식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비교적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탈모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탈모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탈모증 초기에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하며, 평상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충실히 자기 관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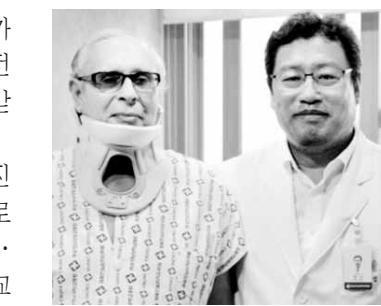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성 탈모

출산 후에는 휴지기 모발이 빠지는 산후 탈모증이 나타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2~4개월 후에 나타나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모발이 빠지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아주 많이 빠지는 기간은 1~2개월 정도이며 점차 빠지는 숫자가 줄고, 수 개월이 지나면 본인 스스로 만족을 느낄 정도로 회복된다.

산후 탈모증과 같은 휴지기 탈모증은 힘든 분만과정으로 인해 두피로

“고마워요 화순전대병원”



카자흐스탄의 한 사진 작가가 미국 유명 대학병원 대신 화순전대병원에서 고난도의 수술을 받고 완치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사진 작가 겸 기자로 활동중인 체쿠로브(66·사진원쪽)씨가 최근 수술·완치 귀국한 뒤, 집도의인 정신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체쿠로브씨는 지난달 3주 동안 화순전대학교병원에 입원해 목 뒷부분 경추신경증양을 치료받았다.

15년 전 미국 코넬의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적 있는 그는 당초 미국이나 세계의 유명 대학병원을 염두엔 둔 탓에 한국행을 생각지 않았다. 그는 수 년 전부터 목 부위 통증과 좌측마비 증상에 시달려왔다.

한국의 의료수준이 높다는 입소문에 반신반의하던 그는 지난 7월

경외과 교수 등이 현지를 방문 중이었다.

상담을 신청한 그는 정신 교수의 상세한 설명과 완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심사숙고 끝에 화순행을 결심했다.

화순전대병원이 JCI 재인증을 받았다는 점도 마음을 끌었다.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은 환자안전과 의료질이 세계적 수준임을 보증하는 것�이 때문이다. 낯선 이국땅을 찾아온 그에게 숲으로 둘러싸인 병원의 자연환경과 첨단진료, 친절한 의료서비스는 큰 위안이 됐다.

체쿠로브씨는 “한국의 따뜻한 정을 들풀 느끼고 있다. 한때나마 미국 의술이 최고이고, 한국은 한참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그런 생각이 버뀌었고 내년엔 담낭 용종수술을 받으려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카자흐스탄 사진작가

현지 의료설명회서 상담

미국행 접고 화순행

경추신경증양 수술 완치

귀국후 의료진에 감사 인사

알마티시를 찾은 화순전대병원 의료설명회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 정신 신경외과 교수를 비롯해 범희승 핵의학과 교수, 장우열 신

시엘병원 최범채 원장 아·태 불임치료의사 고문단회의 한국대표 참석



부인과 복강경 수술 및 시험관아기시술 전문병원인 시엘병원의 최범채 원장이 9일까지 3일간 글로벌 제약회사인 메크 세로노 초청으로 싱가폴 국립대학에서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불임치료 전문가들 모임에 한국 불임치료 전문병원을 대표해서 고문단 자격으로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불임치료 과정에서 착상률을 높여주는 프로게스테론 약제의 사용에 관해 최신 지견과 치료경험을 토론할 예정이다.

최 원장이 국내 유수 대학병원 교수나 수도권의 불임 전문병원의

초청강좌를 계획하고 있다. 시엘병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이미 세계 각국에서 20여명의 의사들이 방문, 최원장에게 불임치료방법을 전수받아 귀국후 그 나라에서 불임치료를 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엘병원에서는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불임치료를 관리하고 있다.

시엘병원은 지난달 국내불임치료전문병원 중 해외 외국인이 선호하는 병원으로 법무부에서 9월부터 외국인환자 우수유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적십자사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나눔’

광주·전남 취약계층에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는 지난 7일 광주희망나눔봉사센터 강당에서 KB국민은행 호남남지역본부, 광주굿모닝병원, 광주희망나눔봉사원 등 200여명

찾아 비석닦기 및 조화교체 등 환경정화봉사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광주굿모닝병원 등이 후원해 이뤄졌으며, 이날 빛이 만든 송편은 광주·전남지역 취약계층 500세대에 전달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80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 월43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 교회 등 다목적 이용 가능)

대지/잔디

- 나주 혁신도시인근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청고, 공장 적합)
- 완도군 악산면 11,000㎡ 매 8억4천(펜션, 귀농자, 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 신축주택 포함)
- 장흥군 융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 요양병원, 고등학교 등 적합)
- 여수 둘산을 전 1,874㎡ 매 2억(비단전망, 전원주택, 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용 4.5억 포함)

광주, 전남권 매도·매수 상담, 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문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부실채권(NPL) 매각

용산동 웨딩홀